KIRI 리 포 트
글로벌 이슈

일본,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 이후 변화

이소양 연구원

요 약

일본은 DC형 퇴직연금 투자수익률 개선하기 위해 2018년 5월부터 디폴트옵션 제도인 '지정운용방법'을 시행함. 지정운용방법 도입 이후 사업주의 실적배당형 상품 설정 비중 확대,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의 실적배당형 상품 투자 비중 확대 등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지정운용방법 도입 목적이 일정 부분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60% 이상의 사업주는 여전히 지정운용방법을 도입하지 않고 있음

○ 2018년 5월 이전에 일본에서 운용지시를 하지 않은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적립금은 '후생노동성 연금국장 통지에 의한 사전에 정해진 운용방법(디폴트상품) 제도'(이하, '디폴트상품 제도')로 운용됨

- 디폴트상품 제도는 운용지시를 하지 않은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납부금이 곧바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사전합의하여 선정한 디폴트상품으로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임
- 디폴트상품 제도를 도입하는 사업주가 원리금보장형 상품을 포함한 투자상품을 디폴트상품으로 제공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대부분의 사업주가 디폴트상품을 원리금보장형 상품으로 설정했음
  - 2016년 기준 디폴트상품의 95.9%는 원리금보장형 상품임
-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주 대부분이 디폴트상품 제도를 시행한 상황에서 운용지시를 하지 않은 가입자의 퇴직연금 적립금 대부분은 원리금보장형 상품으로 운영되므로 저금리 환경에서 투자수익률이 낮았음
  - 2016년 기준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주의 64.9%는 디폴트상품 제도를 시행함

○ 일본은 2018년 5월부터 기존의 디폴트상품 제도를 보완하여 새로운 적용 방법, 디폴트상품, 가입자 교육 등을 포함한 일본판 디폴트옵션 제도인 '지정운용방법'을 시행함[1)]

- 일본 후생노동성은 DC형 퇴직연금 투자수익률 제고를 위해 2016년 6월 DC형 퇴직연금 관련 법률을 개정하면서, 2018년 5월부터 일본판 디폴트옵션 제도인 '지정운용방법'을 시행하기로 함
  - 일본은 지정운용방법을 통해 운용지시를 하지 않은 가입자의 실적배당형 상품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투자수익률 제고를 기대함
- 지정운용방법은 가입자의 운용지시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운용방법의 적용 시점을 DC형 퇴직연금 가입일부터 일정 기간(3개월의 대기기간 및 2주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로 조정함
- 또한 퇴직연금 적립금의 원리금보장형 상품 투자 비중을 줄이기 위해 사업주가 원리금보장형 상품을 포함한 투자상

1) 이경희(2021. 2), 「일본의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제도 도입 사례 분석 및 시사점」, 『한일경상논집』

품을 디폴트상품으로 설정하는 의무를 폐지하고 사업주가 노사협의에 따라 디폴트상품(예: 원리금보장형 상품과 실적배당형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함

- 마지막으로, 가입자의 운용지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주나 운용관리회사가 지정운용방법 적용 가입자를 대상으로 투자 교육, 자산 금액 통지 등 정보제공 기회를 통해 가입자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요구함
  - 지정운용방법의 투자 교육은 천편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고 연령별·투자상품별로 다르게 제공됨

○ **2018년 이후 사업주의 지정운용방법 제도 도입 비율은 과거의 디폴트상품 제도와 비교할 때 크게 하락했지만, 디폴트상품으로 설정한 실적배당형 상품 비율은 상승한 추세를 보이고 있음(〈표 1〉 참조)**

- 2018년 이후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주의 지정운용방법 제도 도입 비율은 30~40% 수준에 머물러 과거 사업주의 디폴트상품 제도 도입 비율(64.9%, 2016년[2] 기준)을 크게 못 미치고 있음
- 반면 지정운용방법 제도하에 사업주가 디폴트상품으로 설정한 실적배당형 상품 비율은 20%대 이상으로 과거 디폴트상품 제도하에 디폴트상품으로 설정한 실적배당형 상품 비율(4.1%, 2016년 기준)을 크게 상회한 수준임
  - 2021년 기준 지정운용방법을 도입한 사업주가 디폴트상품으로 설정한 실적배당형 상품 가운데 TDF펀드, 자산배분펀드, 리스크컨트롤형 펀드의 비율은 각각 14.2%, 9.4%, 4.7%임

○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의 실적배당형 상품 투자 비중은 지정운용방법 적용 가입자 증가와 가입자 납부금의 실적배당형 상품 투자 확대로 2016년 44.8%에서 2021년 55.1%로 상승함(〈표 1〉 참조)**

- 지정운용방법의 적용 대상은 2018년 5월 이후 DC형 퇴직연금 신규 가입자로 설정되고 있지만, 신규 가입자가 증가했기 때문에 지정운용방법을 적용받는 가입자 수는 2018년 2.5만 명에서 2021년 36.6만 명으로 대폭 증가함[3]
  - 2018~2021년 DC형 퇴직연금 신규 가입자 수가 132.1만 명에 달한 것을 고려할 때, 지정운용방법 시행 이후 27.7%(=36.6만 명/132.1만 명) 신규 가입자의 적립금은 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되고 있음
- 지정운용방법 시행 이후 가입자 납부금의 실적배당형 상품 투자 비중은 2018년에 52.2%로 절반을 넘었으며,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의 실적배당형 상품 투자 비중은 2020년에 52.1%로 절반을 넘기 시작함[4]

○ **실적배당형 상품 투자 확대 등을 고려할 때 일본의 지정운용방법 도입 목적은 일정 부분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60% 이상의 사업주는 여전히 지정운용방법을 도입하지 않고 있음[5]**

- 지정운용방법의 도입은 기존의 디폴트상품 제도와 같이 의무 사항이 아니고 임의 사항임

2) 일본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임
3) 企業年金連合会(2022. 11), "確定拠出年金統計資料(2022年3月末)"
4) 企業年金連合会, "確定拠出年金に関する実態調査", 각 연호
5) 佐川あぐり(2022. 9), "DCにおける指定運用方法の現状と課題", 大和総研

〈표 1〉 일본 DC형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제도인 '지정운용방법'의 운용 실태

(단위: %, 만 명)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사업주의 도입 비율	64.9	30.9	37.5	40.6	40.5	38.2
실적배당형 상품 설정 비율	4.1	29.3	23.8	24.0	23.6	29.5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수	592.8	649.9	690.6	725.1	750.2	782.0
지정운용방법 적용 가입자 수	-	-	2.5	17.0	24.2	36.6
납부금 기준 원리금보장형 상품 투자 비중	55.0	52.6	47.7	49.5	46.5	42.6
납부금 기준 실적배당형 상품 투자 비중	45.0	47.4	52.2	50.4	53.4	57.4
적립금 기준 원리금보장형 상품 투자 비중	55.2	53.9	51.0	52.7	47.8	44.8
적립금 기준 실적배당형 상품 투자 비중	44.8	46.1	49.0	47.3	52.1	55.1

주: DC형 퇴직연금 및 지정운용방법 적용 가입자 수는 해당 기간 말의 누적 수치이며, 나머지 수치는 해당 기간을 기준으로 집계됨

자료: 企業年金連合会(2022. 11), "確定拠出年金統計資料(2022年3月末)"; 企業年金連合会, "確定拠出年金に関する実態調査" 각 연호; 企業年金連合会, "企業年金実態調査" 각 연호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정리함